

[보도자료]

[즉각 보도가능]

연락처: 정연진 Jean Chung
상임대표, Action One Korea
213.820-3270,
justice815@gmail.com

기자회견
일시: Tues Oct. 1st2019, 1pm
장소: Church Center of UN,
777UNPlazaSuite7C, NY, NY 10017

한국과 국제 평화단체들, “유엔사의 유엔깃발 사용 즉각 중단되어야”

-- 국제민주법률가협회 등 유엔사무총장에 공개질의서 발송 --

(뉴욕시, 뉴욕, 2019년 9월 30일) 이번 유엔총회 기간에 40여 국내외 평화 단체들과 국제민주법률가협회는 유엔사무총장에게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유엔깃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이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자회견 일시: 10월 1일, 화, 오후 1시 / 장소: Church Center of UN, 777 UN Plaza Suite 7C, NY, NY 10017)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만들어진 주한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미국이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왜곡해 만들어진 ‘위장’ 기관이다. 또한 유엔안보리의 유엔기 사용승인 역시 유엔깃발법을 위반하였다. 한국과 국제 평화단체들은 유엔 산하 공식기구도 아닌 소위 ‘유엔사’가 유엔 깃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며 유엔기 사용승인권력을 가진 유엔사무총장이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유엔깃발법에 따르면 유엔깃발 사용승인권력은 유엔사무총장에게 있다.)

1970년대부터 이미 유엔회원국들은 ‘유엔사’ 해체와 유엔기사용 중지를 요구해왔다. 1975년에는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까지 결의한 바 있다. 1993년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자신이 유엔깃발의 사용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공표했으며 1994년에는 공개답변을 통해 ‘유엔사’가 유엔산하의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사회와 유엔헌장, 유엔기발법, 유엔총회, 유엔사무총장의 입장을 무시하면서 지금까지 유엔기발을 사용해오고 있다. 이에 한국, 미국 등 국제 평화단체들은 유엔사무총장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 '유엔사'의 유엔기발 사용을 금지시키는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보내게 된 것이다.

9월 30일 발송될 공개질의서는 국제민주법률가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국제민변) 가 여러 국내외 평화단체가 연명한 서신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형식이다. 국제민변의 회장 진 마이어 변호사는 “미국이 그동안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며 유엔의 군대인 것처럼 위장해 온 것은 유엔의 평화 정신을 심각히 위배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 평화단체들은 이번 유엔 총회기간 동안 **KIPF (Korea International Peace Forum** 코리아국제평화포럼)을 중심으로 6개 단체로 구성된 평화사절단을 구성하고 뉴욕을 방문하여 국제사회에 코리아 평화 이슈를 알리는 일에 나섰다. 이 대표단의 류경완 단장은 “‘유엔사’ 문제는 한국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면서, “소위 ‘유엔사’는 4.27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를 가로 막는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온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모았던 남북철도-도로 잇기 사업도 ‘유엔사’가 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국제평화단체들은 유엔의 법과 권위,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유엔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구테레스 유엔사무총장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국전쟁이후 한국과 일본에 주둔해온 ‘유엔사’가 미국의 위장술이라는 것을 밝히고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국제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유엔사’ 문제는 최근에는 2020년 전작권 반환 문제와도 연관되어 국내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